<보고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보고서

2019년도 5월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여 행 국 : 미국동부, 캐나다
2. 연수목적
   - ㅇ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배양하고 의원의 발전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능력 향상
   - ㅇ 담양군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시책 수립 등의 대응방안 강구 및 의원의 세계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3. 연수기간 : 2019. 5. 13 ~ 5. 22 (8박10일)
4. 연수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비 고
의장	김 정 오	의원(7)
의원	김 기 석	
의원	이 정 옥	
의원	김 현 동	
의원	이 규 현	
의원	김 성 석	
의원	최 용 호	
의회사무과장	김 남 호	의회사무과(8)
전문위원	최 미 정	
의정담당	최 두 현	
주무관	김 성 주	
주무관	임 규 완	
주무관	박 효 진	
주무관	김 태 우	
주무관	김 병 훈	
부군수	고 병 주	집행부(2)
예산담당	제 성 현	

목 차

□ 2019년도 담양군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 4

○ 연수 개요 및 효과 ····· 4

○ 연수 일정 ····· 6

○ 방문 기관별 연수내용 ····· 7

•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의원실 방문 ····· 7

•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시의회 방문 ····· 9

• 뉴욕 배터리 도시농장 견학 ····· 11

• 캐나다 몬트리올 루파팜스 농장 견학 ····· 13

○ 역사문화자원 견학 ····· 15

•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 15

• 캐나다 퀘백시 ····· 16

• 캐나다 토론토 신·구청사 ····· 18

○ 자연유산 견학 ····· 19

• 캐나다의 천섬 및 나이아가라 ····· 19

○ 연수를 마치고 ····· 20

2019년 담양군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 선진 외국에 대한 연수 체험기회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배양하고 의원의 발전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능력향상
○ 담양군 군정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시책 수립 등 대응방안 강구와 지역의 세계화·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 이바지

Ⅰ 연 수 개 요

○ 기　　간 : 2019. 5. 13(월) ~ 5. 22(수) 8박10일
○ 연수국가 : 미국동부, 캐나다
○ 대　　상 : 17명(의원 7, 의회사무과 8, 집행부 2)
○ 연수내용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경관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현황
  • 선진국 지방의회 방문 및 도심농장 운영 현황 등 비교 견학
○ 주요 방문지
  • 기관방문 :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의원실, 워싱턴 페어팩스 시의회, 뉴욕 배터리 도시농장, 몬트리올 농장
  • 역사문화자원 : 퀘백 시타델, 노틀담 성당, 자유의 여신상, 성요셉 대성당, 토론토 스카이 돔, 토론토 신·구청사 등
  • 자연유산 : 세인트로렌스강의 천섬, 나이아가라, 온타리오 호수 등

Ⅱ 연 수 효 과

○ 역사적 전통이 있는 선진국 지방의회 및 공식기관을 방문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운영방식 및 문제점 등을 비교하여 우리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군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세계화·국제화 마인드를 함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선진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방문하여 직접보고 느낌으로서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보전하여 활용하는 이들의 정신을 본받아 생태도시 담양의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선진외국에 대한 연수 실시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방안 모색 등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 배양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Ⅲ 국외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1일차 5/13 (월)	인 천 워싱턴	KE093 전용차량	10:30 11:20 14:0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워싱턴 향발(14시간) • **미국 워싱턴 도착** 후 방문지 이동 •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의원실(공식일정1)** •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가 초대되는 **백악관** • 미합중국의 상징인 **국회의사당** •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슨 제퍼슨 기념관**
2일차 5/14 (화)	워싱턴	전용차량	10:00	• **패어팩스 시의회(공식일정2)** • **뉴욕**으로 이동
3일차 5/15 (수)	뉴 욕	전용차량	전 일	• **배터리 도시농장 방문(공식일정3)** • 약 200여 나라의 외교문제를 토의하는 곳-**유엔본부** • 미국을 대표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전망대**
4일차 5/16 (목)	퀘 백	전용차량	전일	• **퀘백**으로 이동 • 300년 이상의 역사를 품은 군사요새-**시타델** • **노틀담 성당**
5일차 5/17 (금)	퀘 백 몬트리올	전용차량	전일	• 퀘백시티의 명소-**샤또프론트낙 호텔** • **올드퀘백, 구청사, 쁘띠샹플랭 거리** • 프랑스 문화의 요람-**르와이알 광장 등** • **몬트리올**으로 이동 • **LUFA FARMS 몬트리올 농장 방문(공식일정3)** • 장대한 분위기의 카톨릭 성당-**성요셉 대성당**
6일차 5/18 (토)	오타와 킹스턴 토론토	전용차량	전일	•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로 이동 •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상징물 **국회의사당** • **킹스턴**으로 이동 • 세인트로렌스 강에 떠 있는 천여개의 **천섬** • **토론토**로 이동
7일차 5/19 (일)	나이아가라	전용차량	전일	• **나이아가라**로 이동
8일차 5/20 (월)	토론토	전용차량	전일	• **토론토**로 귀환 • **온타리오 호수** • 캐나다 최대의 대학인 **토론토 대학, 신·구청사**
9일차 5/21 (화)	토론토	전용차량 KE074	오전 12:40	•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수속 • 토론토 출발 / 인천국제공항 향발
10일차 5/22 (수)	인 천 담 양		15:10 19:4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담양도착 후 귀가**

Ⅳ 연 수 내 용

❑ 방문 기관별 연수내용

1.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의원실 방문

○ 개요

· 일시 : 2019. 5. 13.(월)
· 장소 : 미국 국회의사당
· 참석 : 17명 (의원 7, 직원 10)
· 주요내용 : 국회의사당 상원 의원실 견학

○ 기관 현황

국회의사당 건물은 내셔널 몰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의 하나로 의사당의 돔은 마치 건물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맞은편 좌측이 상원, 우측은 하원이 사용하고 있고 정중앙의 기둥 높이는 약 77m이고, 그 꼭대기에 자유의 여신이 서있다. 그리고 기둥의 제일 아래 로돈다(돔아래 부분)의 벽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위인들과 콜롬버스의 신대륙 상륙, 독립선언 등의 미국 역사에 대해 그린 유화가 전시되고 있다.

○ 방문결과

의회기관을 일반인들에게 오픈하여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비디오 시청 및 해설사를 동원한 국회의사당의 개략적인 역사 설명에 더해, 내부에 그림이나 동상을 통해 미국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관광사업으로까지 연결시킨 점을 보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 군에 접목하면 좋겠다 생각함.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내부

국회의사당 내부

국회의사당 안내 비디오 상영

국회의사당 해설 청취

국회의사당 관련 비디오 시청

2.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의회 방문

○ 개요

· 일시 : 2019. 5. 14.(화)

· 장소 : 페어팩스 시의회

· 참석 : 17명 (의원 7, 직원 10)

· 주요내용 : 페어팩스 시의회 의원과 간담

o 기관현황

버지니아주 북동부에 위치하며 워싱턴의 남서쪽에 있으며 원래 워싱턴 특구 주민의 교외 주거지로 이용되었고 페어팩스군(郡)의 군청이 이곳에 있으나 시 자체는 군에 소속되지 않은 행정상 독립된 도시이다.

법원이 생긴 1800년 이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고 1800년에 건축되어 1967년 복원된 옛 법원 건물에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과 그의 부인의 유언장 원본이 전시되어 있다.

초기에는 어프스코너로 알려졌으며 1805년 프로비던스 자치읍으로 인가되었다. 1859년 영국 캐머런의 토머스페어팩스(Thomas Fairfax)경의 이름을 따서 페어팩스로 개칭하였다. 주택도시로서 광학렌즈와 악기 제작, 조립식 주택 건설 등의 경공업이 발달했으며, 1961년에 시(市)로 승격되었다.

이곳은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의 주된 거주지로 미국 내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다수의 기업들이 이곳에서 활동 중이며 한국 기업들의 지사도 많다.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 기업의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o 방문결과

인구 2만5천여명의 작은 도시로 시의원은 6명이 있으며 2년 임기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 지방의회 의원은 중앙정부나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무소속 출마를 하고 있었으며 선거제도도 우리와는 다르게 출마자가 선거구 세대를 방문하여 홍보할 수 있고 선거구 지역민이 관광 나들이나 외유시 음식제공도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돈과 음식제공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와는

다른 선거 문화를 이루고 있어 유권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면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의회 기능의 하나로 임시회와 비슷한 회의는 한달에 3번씩 의원을 소집하여 도시개발, 토지사용 건축허가 등을 심의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연간 회기일수가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지역의 중요 현안사항이나, 개발업무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의 제약이 있으나 페어팩스 시 의회는 한달에 3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보통 새벽에 회의가 끝날 정도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며 시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장과 의회사이의 균형과 견제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시의원과의 간담

시의원과의 간담

김정오 의장 질의

기념품 전달

패어팩스 시의회 전경

소통담당관의 설명

3. 뉴욕 배터리 도시농장 견학

○ 개요

· 일시 : 2019. 5. 15.(수)

· 장소 : 뉴욕 배터리 농장

· 참석 : 17명 (의원 7, 직원 10)

· 주요내용 : 도심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잡은 배터리 농장 방문.

○ 기관현황

뉴욕 월가에서 직선거리로 1km정도 떨어진 거리에 '배터리 어반팜'이라는 명칭의 뉴욕 도시농업 교육농장이 있다. 넓이는 600평 남짓하고 '배터리 공원' 안에 위치하여 8년째 운영중이었다. 주변이 모두 높은 건물인데다 공사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물질들 때문에 좋은 흙을 공수해와 농장을 이루고 화학비료를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을 고수한다고 한다.

추위로부터 묘목 보호를 위해 겨울에는 작은 컨테이너에서 묘목을 키워 따뜻해지면 외부로 옮겨 심고, 통풍과 배수를 고려하여 농작물간의 간격도 널찍하게 유지하는 등 경작에 최적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땅 소유주는 뉴욕시지만 관리는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정부지원은 일체 없다고 한다. 재배한 농작물은 학교급식에 납품하고있고 농장은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친환경농법 현장체험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 방문결과

도시 중심의 공원 일부에 농장을 마련하여 작은 묘목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물과 거름을 주는 것까지 힘들지만 기본을 고수하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점이 좋았다.

도시화 되어 가는 추세에 우리군도 생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 작물재배 지역을 확보하여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미래에는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이익만 생각하여 정해진 땅에서 생산량만을 늘리려는 우리현실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교육을 고려하고 자연을 우선시하는 마인드는 우리뿐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교훈이 될 듯하다.

유리 온실 설명 청취

토양 관찰

재배 작물 관찰

기념품 전달

배터리 도시 농장 전경

관리자 설명 청취

4. 캐나다 몬트리올 루파팜스 농장 견학

○ 개요

· 일시 : 2019. 5. 17.(금)

· 장소 : 몬트리올 루파팜스 농장

· 참석 : 17명 (의원 7, 직원 10)

· 주요내용 : 루파팜스 농장 견학 및 관리자와 간담

○ 기관현황

루파팜스 농장은 옥상에 시설 하우스를 건축하였는데 옥상에 농장을 만든 이유는 인구는 많아지고 경작할 땅은 줄어듦에 따라 식량문제가 대두하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고안 되었다고 한다. "our vision is a city of rooftop farms"(우리의 비전은 옥상 농장 도시이다)의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할만큼 옥상 농장이 미래 농작물 재배위치로 적정함을 어필했다.

작물은 오이, 후추, 가지, 상추같은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었으며 매주 4천여명의 고객들에게 직접 배달하고 있었다. '당일수확 당일발송'이라는 원칙하에 운영하므로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가 신선한 작물을 직접 배송받아 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며, 운영진 역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작물 재배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주말마다 오픈하우스를 열어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등 마케팅에도 소홀하지 않으므로 2001년에 재배를 시작으로 라발, 옹주르지역에도 온실을 오픈하여 총 3개의 온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 방문결과

루파팜스의 최대 장점은 수경재배를 통한 무농약 채소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이었다.

생산과 유통, 그리고 고객의 소리까지 경청함으로써 다른 경쟁회사보다는 제품에 대한 개선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어느 회사보다 빠르다고 생각했다

작물의 생산과 유통방식에도 놀랐지만 도시농장으로 인해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전하고 빠른 먹거리 제공에 큰 역할을 하는 옥상 농장 재배 방법은 앞으로 우리군에도 접목할 만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루파팜스 전경

농장관계자 설명

농장 견학

농장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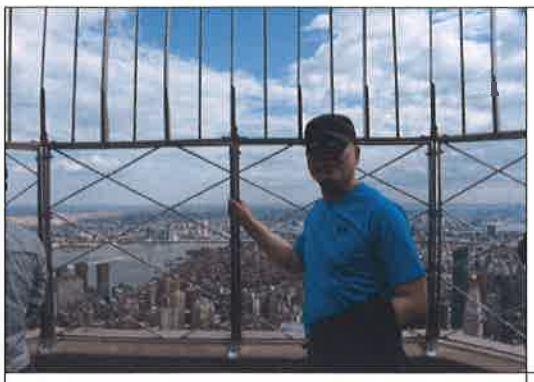
농장 견학

기념품 전달

❑ 역사문화자원 견학

1.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1930년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은 뉴욕을 상징하는 고층빌딩으로 수많은 영화에 등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다. 높이 약 443m로 이제는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3백 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9.11테러사건으로 인해 세계무역센터 건물(일명 쌍둥이빌딩)이 무너진 이후로 맨해튼의 랜드마크 구실을 도맡아하고 있으며 인기가 더 높아진 건물이기도 하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전망대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서 바라 본 뉴욕 전경

2. 퀘백

퀘백 주의 수도인 퀘백시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유럽 열강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세력 다툼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북미의 "지브랄타"라고 불린다. 이런 이유로 퀘백시에는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돌로 된 성벽과 군사 요새가 많이 있다.

주민의 95%가 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통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 퀘백시는 세인트로렌스 강과 로렌시앙 산맥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 원주민과 함께 프랑스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영위하면서 어울려 살고 있다.

세인트로렌스 강은 퀘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서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세인트 로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무수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1690년 프랑스는 영국군을 물리쳐 퀘백시를 프랑스령으로 만들었으나, 1759년 아브라함 평원 전투로 인해 영국군에게 패해 영국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1774년 파리강화조약 체결 이후 퀘백에 살고 있는 프랑스계 주민들은 프랑스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고,

불어 사용 권리를 보장받아 프랑스 문화의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다. 1775년 이 지역에서의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영국군은 방심하지 않고 성벽을 쌓아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었다.

그래서 퀘백은 북미에서 유일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되었고, 이것이 퀘백시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시타델

르와이알 광장 입구 벽화

르와이알 광장

쁘띠샹플랭 거리

샤또프론트낙 호텔 내부

성요셉 대성당 내부

3. 토론토 신·구청사

○ 현대적인 건축양식이 돋보이는 〈신시청〉

: 토론토 신시청은 토론토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축물 중 하나로 99m 높이의 이스트 타워와 20층, 79미터 높이의 웨스트 타워, 이렇게 두 개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다. 두 빌딩의 생김새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중앙에는 의회 회의장이 있어 균형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고 있다. 신시청 건물은 1965년 전 세계 42개국 520여 개의 출품작이 경합을 벌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된 것이다.

○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구시청〉

: 토론토 구시청은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 깊은 곳으로 신시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카사로마와 킹 에드워드 호텔 등을 만든 건축가 에트워드 제임스 레녹스가 디자인했으며, 약 10년의 기간 동안 지어졌다. 구시청 건물이 완성된 1899년 당시에는 토론토 시내 전체에서는 물론 북미에서 가장 큰 시정 건물이었다. 1965년 신시청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온타리오 정부의 법원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벽면에 새겨진 찡그린 얼굴들은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건물을 짓는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정치가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토론토 구청사

토론토 신청사

❑ 자연유산 견학

1. 캐나다의 〈천섬〉

천섬(1000 Islands)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캐나다 인기 명소 중 하나이다. 세인트로렌스 강에 떠 있는 천여 개의 섬이 만들어 낸 풍경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낚시, 세일링, 골프, 스쿠버 다이빙, 사이클링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함께 선사해준다. 유명 관광지인만큼 근사한 레스토랑과 편리한 숙박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천섬

유람선에서 바라본 천섬

2. 나이아가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55미터에 폭은 671미터에 달한다. 폭포는 고트 섬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동쪽은 아메리칸 폭포이며 왼쪽은 캐나다의 호스슈 폭포이다. 오대호의 하나인 이리 호수에서 나온 물이 35킬로미터를 흐르다가 물살이 급해지는가 싶으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온다. 이 폭포에서 떨어진 물은 다시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간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폭포가 흘러들어가는 하류는 11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초당 7,000톤씩 기반암을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 바위를 깎아내면서 폭포는 일 년에 1~2미터씩 후퇴하고 있다.

나이아가라 전경

나이아가라 전경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단체사진

나이아가라 유람선 탑승

V 연 수 를 마 치 고

○ 국제정치와 외교의 중심지 워싱턴에 도착하여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우리는 의사당 일부를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해설사까지 동반시킨 관광마케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미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졌는지 입장객 줄은 건물 외부까지 이어졌으며 그룹별 관람체계까지, 정부기관이라기보다 관광지로 보아야할만큼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있었다.

건물 내부에 그려진 그림, 동상들은 미국의 정치 배경을 잘 알려주었고, 딱딱하고 정적인 기관이 아닌, 생동감이 넘쳤다.

○ 버지니아 주 패어팩스 시 의회를 방문하였을땐 지방의원의 선출방식이나 제도 등은 다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지역을 불문하고 동일함을 느꼈다.

우리 군도 최근들어 SNS나 블로그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페어팩스 시의회의 '소통담당관'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정활동 뿐 아니라 군의 행사 및 주요 관광지 소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뉴욕의 배터리 도시농장과 몬트리올의 루파팜스 방문은 도시화 되어가는 추세에 미래농업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다.

하늘 높이 치솟은 빌딩들 사이에 위치한 배터리 도시농장은 도심의 유해한 물질로 인한 토양의 오염을 우려해 흙 공수부터 유기농 재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험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현재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농작물 재배를 다소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음세대에 훌륭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루파 팜스 농장 역시 '당일생산 당일발송'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작물 재배 방식을 소비자들에게 오픈하여 주말에는 체험용·교육용으로 옥상농장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작물을 재배 하는데 있어서 유기농법을 고수하며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끊임없이 진행중이었다. 현재 우리군도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작물의 재배 방식 및 환경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도시 외관에서부터 유럽을 연상케하는 퀘백시는 한국의 드라마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인기가 많아졌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적 배경도 무시 못하지만 이미 퀘백시티의 명소가 되어버린 샤또프론트낙 호텔, 분수대 등은 스토리가 있기에 관광지로서

더 활성화 되어 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 등이 필요해보이며, 캐나다의 신·구청사처럼 옛것을 보존하여 옛것과 새것이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활용한 관광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